

‘관련성’의 의미: 한국어 모어 화자의 직관 판단과 관련성 조건문의 의미 해석*

박유경

(서울대학교 강사)

<Abstract>

Park Yugeong, 2022. The meaning of ‘relevance’: Korean native speakers’ acceptance judgment and interpretation of relevance conditionals. *Korean Semantics*, 76. This paper mainly aims to investigate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ce conditionals in Korean. To this end, an acceptability judgment test was conducted on Korean native speakers, and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speakers accept relevance conditionals only when the consequent clause provides relevant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he action-relevant decision problem derived from the antecedent clause. Given this finding, this paper suggests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relevance conditionals based on the Kratzerian interpretation method of ordinary indicative conditionals with some modifications for Korean relevance conditionals. Under the current analysis, it is assumed that the antecedent clause functions as a restrictor of a modal base, just like ordinary conditional clauses. Also, it is claimed that a (potential) action-relevant decision problem is derived from the antecedent clause, and as a result, the addressee’s desire to solve the decision problem by deciding which action should be performed ranks at the top of the addressee’s effective preference; then the consequent clause provides information that helps the addressee to choose the best action among the possible actions that compose the decision problem.

핵심어: 관련성 조건문(Relevance Conditionals), 양상 제한자(Modal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1036023)

Restrictor), 실질적 선호(Effective Preference), 행위 관련 결정 문제(Action-relevant decision problem), 수용성(Acceptability)

1. 서론

관련성 조건문(relevance conditionals)은 조건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의미적으로는 주절이 조건절에 진리 조건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직설법적 조건문(indicative conditionals)과는 구분되어 다루어진다. (Bhatt & Pancheva 2006, Siegel 2006, Scheffler 2008a,b, 등) 관련성 조건문은 Austin (1961)에 의해 처음으로 다루어졌으며, 그 후 영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비스킷 조건문(biscuit conditionals)이나 화행 조건문(speech act conditionals) 등 다양한 이름으로 논의되어 왔다.¹⁾ 본고에서는 주절과 조건절의 의미적인 관계에 주목하여 관련성 조건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영어에서 대표적인 관련성 조건문의 예는 다음 (1)과 같다.

(1) 관련성 조건문

- ㄱ. There are biscuits on the sideboard if you want them. (Austin 1961, p.158)
- ㄴ. If you want to go out tonight, I'm Jill. (Franke 2007, p.5)
- ㄷ. If I may say so, you are not looking good. (Franke 2007, p.5)

(2) 일반적인 직설법적 조건문

- ㄱ. If it rains tomorrow, the game will be canceled.
- ㄴ. If she doesn't come to the party, John will be disappointed.

예를 들어, 일반적인 조건문인 (2ㄱ)에서는 주절의 진리치가 조건절의 진리

1) 기존 논의에서 관련성 조건문은 다양한 용어로 불리어 왔다. 최초의 이론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Austin (1961)의 대표적인 예를 따라 비스킷 조건문(biscuit conditionals)이라 부르거나 (Derose & Grandy 1999, Siegel 2006 등), 조건절이 주절의 화행을 표적으로 삼아 수식한다는 뜻으로 화행 조건문(speech act conditionals)이라 하기도 한다. (Sweetser 1990, 박승운 2003, Shizawa 2011 등) 또는 조건절이 제시한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주절에서 제시한다는 속성을 바탕으로 관련성 조건문(relevance conditionals)이라 명명하기도 한다. (Iatridou 1991, Scheffler 2008a, b 등) 한편 'Relevance'는 '적절성' 또는 '적합성'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복희 (2009)를 따라 '관련성'이라 번역한다.

치에 종속되기 때문에 경기의 취소 여부가 비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관련성 조건문인 (1ㄱ)의 경우 주절과 조건절이 진리 조건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청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찬장에 비스킷이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모어 화자들의 직관적 의미 해석을 바탕으로 할 때 (1ㄱ)의 의미는 ‘(네가) 원한다면, 찬장에 비스킷이 있으니까 알아 뒤라’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조건절의 명제가 참이 되는 상황에서 주절의 내용은 진리 조건적으로 종속되지는 않지만 ‘조건절에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련성 조건문은 두 개의 유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는데(Nakau 1994, Uchida 2001, Franke 2007, Shizawa 2011 등), 예를 들어 Franke (2007)에서는 (1ㄱ-ㄴ)과 같은 예를 이해 조건문(intelligibility conditionals)이라 이름 붙이고 주절이 어떻게 적절하게 해석되어야 할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조건절의 역할이라 하였다. 그리고 (1ㄷ)과 같은 예는 의사소통규칙(communicative rules)과 관련된 유형으로서 조건절이 대체로 의사소통 관련 술어를 포함한다고 하였다.2) (1ㄷ)에서는 의사소통 관련 술어 ‘say’를 포함하고 있다.

관련성 조건문의 예는 다음 (3)과 같이 한국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3) ㄱ. 배고프면, 찬장에 과자가 있어.
- ㄴ. 기름이 떨어졌으면, 주유소는 오른쪽 코너에 있어.
- ㄷ. 변명을 하자면, 눈이 많이 왔어.
- ㄹ. 한마디만 하자면, 이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3ㄱ-ㄴ)은 앞서 살펴본 영어의 예와 마찬가지로 두 절 사이에 진리 조건적 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조건절에 주어진 상황에 관련된 정보가 주절에 제공되고 있다. (3ㄷ-ㄹ)은 앞서 설명한 Franke (2007)의 두 번째 유형, 즉 의사소통 규칙과 관련된 유형에 속하는 예들이다.

Austin (1961)을 포함하여 관련성 조건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논의들이 관

2) (1ㄷ)과 같은 유형 또한 조건절에서 제시된 것과 ‘관련된’ 화행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기에, 두 유형을 모두 통합하여 ‘관련성 조건문’이라 부르기로 한다.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는 두 번째 유형을 제외하였지만, 이후 두 번째 유형의 의미 해석에 대한 독립적인 고찰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등 용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런성 조건문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꼽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련성 조건문의 두 절은 진리 조건적으로 독립적이다. 더 나아가, 많은 논의에서 주절의 진리치가 조건절의 진리치와 상관없이 참으로 함의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Siegel (2006)에서는 주절이 반드시 참이 되지 않는 반례를 제시하면서 이를 비판하기도 하였다.³⁾ 이처럼 주절이 무조건 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살아있지만, 조건절에 대하여 진리 조건적으로 독립적인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건절과 주절의 관계는 맥락을 바탕으로 한 ‘관련성(relevance)’에 있다. 주절은 조건절에서 가정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3ㄱ)에서 ‘찬장에 과자가 있다’는 사실은 ‘청자의 배고픔’과 관련이 있는 정보이다. 그 과자를 먹으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모국어 화자들의 수용성(acceptability)에 있어서 언어마다 다른 특성을 보인다.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일본어 등 많은 언어에서 발견되는 구문이지만 다음에서 보듯이 언어마다 관련성 조건문에 대한 모어 화자의 수용성 판단(acceptability judgment)에는 차이가 나타난다.⁴⁾

- (4) ㄱ. If I don't see you again before then, I hope you have a happy birthday.
 ㄴ. If you are suffering from depression, Friends' Hospital is conducting a study of an investigational medication.(Siegel 2006, p.180)
 ㄷ. #그때까지 우리가 다시 못 보면, 행복한 생일 보내길 바래.
 ㄹ.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00병원이 신약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넷째, (3ㄷ-ㄹ)과 같이 화행 관련 동사가 표면에 드러나는 유형과 (3ㄱ-ㄴ)과 같이 화행 관련 동사가 나타나지 않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구분은

3) 이와 관련된 내용은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4) 본 연구에서 각 언어의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직관 판단 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기존 논문들을 살펴볼 때 (4ㄱ-ㄴ)은 적절한(felicitous)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기에 적어도 한국어와 영어에 있어서 수용성 판단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명의 영어 모어 화자에게 직접 직관 판단을 확인해 본 바 (4ㄱ-ㄴ)이 (1ㄱ)과 같은 대표적인 관련성 조건문의 예에 비해서는 약간의 어색함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영어 관련성 조건문의 수용성 차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더 필요해 보인다.

범언어적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일반적인 조건문과 다른 형태적인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주절에 ‘then’이 나타날 수 없다. 한국어의 경우 (3ㄷ-ㄷ)과 같은 화행 관련 유형에서 ‘-으면’이 아니라 ‘-자면’ 또는 ‘-다면’이라는 형태가 쓰여야 한다.

위의 다섯 가지 속성 중에서 본고에서는 형태·통사적 속성을 제외하고 의미·화용적 속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관련성 조건문의 두 유형 중 (3ㄱ-ㄴ)과 같이 화행 관련 동사가 나타나지 않는 유형으로 연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여 살펴볼 것이다.⁵⁾ 본고에서는 우선 모어 화자들의 관련성 조건문에 대한 수용성 판단을 토대로 한국어 관련성 조건문의 조건절과 주절이 맺고 있는 ‘관련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또한 조사 결과로 나온 ‘관련성’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성 조건문의 의미 해석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일반적인 조건문과는 구분되는 의미 해석 방식을 제안한 기존 논의들과는 달리, Kratzer (1979, 2012)식의 일반적인 조건문의 기본적인 해석 방식을 따라 관련성 조건문의 조건절도 일반적인 조건문의 조건절과 마찬가지로 주절에 나타난 필연 양상소(NEC/MUST)의 양상 기반(modal base)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만, 관련성 조건문의 적절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조건절에 의하여 (잠재적) 행위 관련 결정 문제(action-relevant decision problem)가 도출되고, 그에 따라 화자에 의하여 ‘청자의 원망(願望)’이 가정되며, 이는 청자의 실질적 선호(effective preference)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게 된다. 주절에서는 행위 관련 결정 문제를 구성하는 가능한 행위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하나의 최적의 행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우선, 본고에서는 그동안 전반적인 조건문 연구에서 일부분으로만 다루어졌던 한국어의 관련성 조건문의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특히 실제적인 수용성 분석을 위하여 모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관 판단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5) 앞서 각주2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화행 관련 유형(3ㄷ-ㄷ)에서도 조건절과 주절의 관계는 ‘관련성’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이지만, 두 절의 의미 관계가 첫 번째 유형(3ㄱ-ㄴ)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기에 추후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서 더욱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본고는 관련성 조건문을 분석한 대부분의 기존 논의들과 달리 일반적인 조건문의 해석 방식의 틀을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도 관련성 조건문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이론적인 통일성과 간결성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기존 논의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알아본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한국어의 관련성 조건문에 대한 허용 범위와 관련하여 모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관 판단 실험의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밝힐 것이다. 4장에서는 3장의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성 조건문의 의미 해석을 제안한다.

2. 기존 이론의 분석

관련성 조건문은 주로 영어를 대상으로 한 논의들이 많았는데, 그 연구들을 살펴보면, Ross (1970), Lakoff (1972), Sweetser (1990) 등의 수행문 가설(The performative hypothesis), Grice (1975), Bach & Harnish (1979), Bach (1999) 등의 단언 이론(Assertion Theory), Siegel (2006)의 잠재된 축어적 행위 분석(Potential literal acts analysis), Scheffler (2008a,b)의 상례 함축 분석(Conventional implicature analysis)⁶⁾, Sano & Hara (2014) 등의 역동적 의미 분석(Dynamic semantics)이 있다. 대표적인 이론과 그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행문 가설에서는 관련성 조건문과 일반적인 조건문에 서로 다른 의미 해석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행문 가설에 따르면 관련성 조건문의 조건절은 주절의 화행을 표적(target)으로 삼는다. 즉, (5 \neg)과 같은 관련성 조건문의 논리 구조에는 (5 \cup)과 같이 (보이지 않는) 수행문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5) \neg . If you are hungry, there are biscuits on the sideboard.

\cup . If you are hungry, I say to you that there are biscuits on the sideboard.

6) 상례 함축 분석은 조건절이 주절의 단언을 수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단언 이론과 비슷하지만, 관련성의 의미가 상례 함축으로 도출된다는 점에서는 단언 이론과 다르다.

수행문 가설에서는 조건절이 표적으로 삼는 것이 결국 화행이므로 주절의 진리치는 항상 참이 되어야 한다. 이는 관련성 조건문의 주절은 조건절과 상관 없이 무조건 참이라고 주장한 기존 논의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Siegel (2006)에 따르면 주절의 명제가 항상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6ㄱ)의 경우 주절은 명백한 거짓이지만 발화는 적절성(felicity)을 획득한다. 또한, Siegel (2006)에서는 (6ㄴ)과 같이 수행문이라면 허용되어야 할 ‘hereby’가 쓰이지 못하는 예들을 들면서 수행문 가설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 (6) ㄱ. If they ask you how old you are, you are four. (Siegel 2006, p.177)
 ㄴ. If you need anything else later, my name is (*hereby) James.
 (Siegel 2006, p.172)

단언 이론도 수행문 가설과 마찬가지로 관련성 조건문에 일반적인 조건문과 다른 의미 해석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이론에서는 조건절이 주절의 ‘화행’이 아니라 ‘단언’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관련성 조건문의 논리 구조에는 ASSERT와 같은 화행 연산자가 포함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5ㄱ)은 (7)과 같은 논리 구조를 갖는다.

- (7) If you are hungry, ASSERT (there are biscuits on the sideboard).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서는 화행 연산자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종의 조건적 단언(conditional assertion)으로서 조건절의 명제가 참이 될 때 주절의 단언이 비로소 수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발화 시점에 주절의 단언이 이미 수행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단언 이론은 수행문 가설과 마찬가지로 주절이 참으로 함의된다고 보기 때문에 Siegel (2006)에서 제시한 (6ㄱ)과 같은 예, 즉 주절에 명백한 거짓을 포함하고 있는 예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다음으로 Siegel (2006)의 잠재된 축어적 행위 분석이 있다. 기존 논의들과 달리 관련성 조건문도 일반 조건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기존 조건문의 해석의 틀에 관련성 조건문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Siegel (2006)에 따르면, 관련성 조건문에서는 주절의 의미 해석에 잠재된 축어적 행위에 대한 존재 양화(existential quantification)가 포함된다. 주절의 단언(assertion)이나 질문(question)을 일종의 의미적 대상으로서 아직 실제 화행이 수행된 게 아니라 잠재적 축어적 행위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57)과 같은 관련성 조건문의 의미 구조는 다음 (8)과 같이 풀이될 수 있다.

- (8) If you are hungry, there is a relevant assertion there are biscuits on the sideboard.

그러나 과연 잠재적 축어적 행위(potential literal act)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화용적 위상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관련성 조건문이 종속될 수 없다는 특성을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Scheffler 2008a,b) 또한 (9)와 같은 경우 발화 시점에 실제 화행이 수행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잠재된 축어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다.(이복희 2009, Scheffler 2008a,b 등)

- (9) If I don't see you any more, have a great vacation!

마지막으로 역동적 의미 분석(dynamic semantics)이 있다.(Sano & Hara 2014 등) 역동적 의미론에 따르면 문장의 의미는 ‘맥락 갱신 잠재성(context change potential)’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건문은 조건절에서 한 번 주절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단계의 맥락 갱신을 수반한다.(Stalnaker 1968, Heim 1982, Kaufmann 2000 등). 공통기반(common ground)으로부터 조건절 명제가 참이 되는 세계만을 남기고, 남은 세계들 중에서 주절의 명제가 참이 되는 세계만을 남기는 식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절의 진리치가 조건절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속성에만 집중하였을 뿐 관련성 조건문에서 ‘관련성’이 어떻게 얻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한국어의 경우 관련성 조건문의 예들이 발견되긴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별로 없었다. 본 연구자가 아는 한도에서는 박승윤 (2003), Park

(2015), 김수정·최동주 (2018) 정도가 있다⁷⁾. 우선 박승윤 (2003)과 김수정·최동주 (2018)에서는 조건문 전반을 분석하는 가운데 관련성 조건문에 해당하는 예도 일부 다루었는데, 예는 다음 (10)과 같다.

- (10) 가. 솔직히 말하면, 존은 시험에 떨어졌다. (박승윤 2003, p.36)
 나.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가가 폭락했어요. (박승윤 2003, p.36)
 다. 너 시간 있으면 저기 논현동 갈래? (김수정·최동주 2018, p.211)

박승윤 (2003)의 경우 조건문 분류 과정에서 간단한 언급만 있을 뿐 본격적인 의미 분석은 없었다. 김수정·최동주 (2018)에서는 (10가, 나)와 같은 예를 화행 조건문으로 분류하고, 조건절이 주절에서의 화행을 대화 상황에 좀 더 적합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Sweetser (1990)의 세 단계 레벨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건절의 수식 대상에 따라 명제 조건문(propositional conditionals), 인식 조건문(epistemic conditionals), 화행 조건문(speech act conditionals)으로 나누고, (10)과 같은 예는 그 중 화행 조건문으로서 조건절이 주절의 화행 수행에 대한 조건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김수정·최동주 (2018)의 분석은 조건절이 주절의 화행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수행문 가설이나 단언 이론이 가진 문제점을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Park (2015)에서는 역동적 의미론의 틀에 맞추어 한국어의 관련성 조건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기존 조건문의 해석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성 조건문에만 특별한 해석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이론적으로 더 나은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관련성’의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의 분석과 그 문제점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Siegel (2006)에서 시도한 것과 같이 일반적인 조건문의 해석 방식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관련성 조건문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는 이론적 간결성과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국어의 관련성 조건

7) 앞서 언급한 이복희 (2009)는 영어의 관련성 조건문을 대상으로 한 논의이므로 한국어 대상 연구 목록에서는 제외한다.

문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이론에서 조건절과 주절의 관계에 대하여 직관적 설명에 그쳤던 부분을 형식화하여 체계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3. ‘관련성’의 의미: 모어 화자들의 수용성 판단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관련성 조건문이 영어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모국어 화자들의 관련성 조건문에 대한 수용성을 조사하였다. (11)에서 보듯이 영어의 관련성 조건문을 한국어에 대응시켜 보면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1)과 같이 의미적으로 어색한 문장들과 (3) (=12)에서처럼 어색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문장들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모어 화자들의 직관적 판단에 어느 정도 체계적인 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연 정확히 어떠한 환경에서 모어 화자들이 어색하다고 또는 자연스럽다고 판단하는지 실질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 (11) 가. #배가 고프면, 1 더하기 1은 2이다.⁸⁾
 나. ??다음 주에 출근 안 하면, 생일 축하해요!
 다. ?나중에 추가 주문이 필요하시면,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라. ?x값을 알고 싶으면, 삼각형의 모든 각의 합은 180도이다.
- (12) 가. 배고프면, 찬장에 과자가 있어.
 나. 기름이 떨어졌으면, 주유소는 오른쪽 코너에 있어.

Park (2015)에서는 (11)과 같은 문장들이 어색한 이유를 문화적 차이 또는 적절한 행위 선택 문제가 도출되지 않는 맥락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직관적인 해석에 의존한 것으로 의미론적 해석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저자 자신의 직관에만 의존하였기에 모어 화자들의 직관이 완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 특히 Park (2015)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에서 각각 허용되는 ‘관련성’의 범위를 명확하게

8) 문장 앞의 # 표시는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의미적인 또는 화용적인 측면에서 어색한 문장이라는 의미이다.

구분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언어 화자들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과 허용 범위의 차이를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단순히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관련성’에 있어서 좀 더 논리적인 엄격성을 적용하는 게 한국어 화자들의 특성이라 한다면 (즉, 행위 관련 결정 문제를 풀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만이 관련성을 갖는다고 판단한다면) 영어 모어 화자들에게 있어서 ‘관련성’이란 행위 관련 결정 문제와 다른 조건에 의하여 관련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질문들에 보다 명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관련성 조건문의 수용성과 그 해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3.1. 조사 대상과 방법

본고의 직관 조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우선, 한국어 모어 화자가 관련성 조건문을 허용하는지 여부이다. 지금까지 본 저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어의 관련성 조건문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논의는 Park (2015)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어 화자들에게 있어서 관련성 조건문이 자연스러운 언어 표현으로서 허용되느냐가 첫 번째 의문점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에 관련성 조건문이 있다면, 조건절과 주절의 ‘관련성’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본 저자의 직관에 따르면 다른 언어에 비하여 그 허용 범위에 제약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한국어 화자들은 어느 범위까지를 ‘관련된다’고 판단할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ark (2015)에 따르면 한국어의 관련성 조건문에서는 행위 관련 결정 문제와 관련된 것만 허용된다고 한 바 있다. 예를 들어 (13)에서는 청자가 배고픔이란 문제를 갖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행위들(집에 있는 음식을 먹는다, 외식을 한다, 배달음식을 주문한다 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13) 배가 고프면, 냉장고에 피자가 있어.

Park (2015)에서는 (13)의 조건절에서 제시된 행위 관련 결정 문제를 Davis (2009)를 참고하여 (14)와 같이 ‘가능한 행위 대체항들의 집합’으로 형식화한다.

$$(14) A(c) = \{FOOD_{STAY(Ad)}, FOOD_{OUT(Ad)}, NFOOD_{STAY(Ad)}\} \\ \langle c \{FOOD_{EAT(Ad)}, NFOOD_{OUT(Ad)}\}$$

이때 행위 관련 결정 문제는 van Rooy (2003)의 ‘결정 문제(decision problem)’에 해당하며, 어떤 화자(또는 청자)가 결정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가능한 여러 개의 행위 집합이 있고, 그중 최적의 행위를 골라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van Rooy 2003, p.733) 이후 Davis (2009)는 Grice (1975)의 관계의 격률(Maxim of relevance)의 ‘relevance’가 바로 van Rooy의 결정 문제(decision problem)에 대한 관련성과 같다고 풀이한 바 있다. 본고는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관련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14)에서 보면 집에 먹을 것이 있는 상황(FOOD)과 집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NFOOD)에 따라 각각 가능한 행위의 대체항들이 설정된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적의 결과를 얻어내려 한다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선호 관계를 고려한다면, 음식이 있을 때 그 음식을 먹고(FOOD_{EAT(Ad)}), 음식이 없을 때 밖으로 나가 외식을 하는 행위(NFOOD_{OUT(Ad)})가 다른 모든 대체항들에 비하여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14)에서는 <c의 우측이 더 나은 선택을 나타낸다. 음식이 있든 없든 먹지 않고 배고픔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FOOD_{STAY(Ad)}, NFOOD_{STAY(Ad)}) 또는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경우(FOOD_{OUT(Ad)})는 다른 대체항들에 비해 선호되지 않는 쪽(<c의 좌측)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청자는 결국 FOOD_{EAT(Ad)}와 NFOOD_{OUT(Ad)}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행위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고, Park (2015)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에게 있어서 이 두 행위 중 어떤 것을 최적의 행위로 선택해야 할지 도와줄 수 있는 정보가 ‘관련된’ 정보로 받아들여진다고 본다. (13)의 주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냉장고에 피자가 있다’는 정보는 FOOD_{EAT(Ad)}가 최적의 행위로 선택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는 정보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13)은 적절성

(felicity)을 획득한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Park (2015)의 이와 같은 주장은 저자의 개인적인 직관에 의존한 것이기에 모국어 화자들이 정말 행위 관련 결정 문제에 관련된 것만을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허용하지 않거나 일부 화자만 허용하는 예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실제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20대 이상 화자들을 제보자로 표집하였다. 본격적인 설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 예비 조사를 통해 나이, 성별, 직업, 모국어 등 제보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총 40명의 제보자 중 20-30대는 5명, 40-50대는 25명, 60대 이상은 10명이었다. 남성은 9명 여성은 31명이었다.⁹⁾ 직업은 주부 11명, 교육직 9명, 사무직 8명, 전문직 4명, 예술가 3명, 판매·서비스직 3명, 학생 2명이었다. 설문은 네이버폼의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40명의 제보자들에게 설문조사 폼을 전송, 각자의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풀도록 하였다. 실험은 문장이 주어지고 자연스러움의 정도를 ‘1)아주 자연스럽다. 2)다소 부자연스럽다. 3)아주 부자연스럽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택이 어려운 경우 ‘4) 선택하기 어렵다’를 고르게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실험 문장은 무작위 순서로 제공되었다.

3.2. 설문 항목의 구성

본고의 직관 조사에서는 위 3.1.에서 소개한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다음 (15-1-2)과 같이 세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 문장을 구성하였다. 항목별 10문장씩 총 30문장으로 실험 문장이 구성되었으며, 필러 문장 10개를 포함하면 총 40개의 문장이 피험자들에게 제공되었다.

9) 본 조사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들의 관련성 조건문에 대한 직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별, 연령 등 사회언어학적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기에 제보자의 구성 비율을 조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관련성 조건문의 수용성에 있어서 문화적/시대적 배경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후 연구에는 사회언어학적 차이를 고려한 설문 대상의 표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5) ㄱ. [항목1] 주절이 조건절의 행위 관련 결정 문제(action-relevant decision problem)에 관련된 경우:
- i) 조건절에서 도출될 수 있는 청자의 (잠재적) 행위 관련 결정 문제에 관련된 정보를 주절에서 제공
예: 추우면, 열방에 담요 있어.
 - ii) 조건절에서 도출될 수 있는 화자의 (잠재적) 행위 관련 결정 문제에 관련된 정보를 주절에서 청자에게 요청
예: 오늘 회의가 11시 이후에 끝나면, 그 시간에 평택 가는 버스가 있니?
- ㄴ. [항목2] 행위 관련 결정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조건절과 주절이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주절의 내용이 조건절의 행위 관련 결정 문제에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예: 아프면, 당직 의사가 항상 대기 중이에요.
- ㄷ. [항목3] 조건절에서 행위 관련 결정 문제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
예: 지금 나갈 거면, 밖에 비와.
- ㄹ. [필러 문장] 주절의 진리치가 종속절에 진리 조건적으로 종속된 경우
예: 해가 지면, 온도가 내려간다.

(15ㄱ-i)은 행위 관련 결정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이다. ‘추우면, 열방에 담요 있어’라는 예에서 보면, 조건절에 ‘(청자가) 춥다’는 상황이 제시되고, 이는 추위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결정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행위 결정 문제를 구성하는 가능한 행위들은 (16)과 같다.¹⁰⁾

$$(16) A(c) = \{BLANKET_{ENDURE(Ad)}, NBLANKET_{ENDURE(Ad)}, BLANKET_{HEATER(Ad)}\} \\ <c \{BLANKET_{COVER(Ad)}, NBLANKET_{HEATER(Ad)}\}$$

담요가 있으면(BLANKET) 추위를 참거나(ENDURE_(Ad)) 돈이 드는 난로를 켜는 것(HEATER_(Ad))보다는 담요를 덮는 것(COVER_(Ad))이 최적의 행위이고, 담요가 없으면 비록 돈이 들지만 난로를 켜는 것(NBLANKET_{HEATER(Ad)})이 최적의 행위가 될 것이다. 이어지는 주절에서는 ‘열방에 담요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17)과 같이 NBLANKET 상황을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와 앞서 제시된 행위들 가운데 ‘담요를 덮는다(COVER_(Ad))’를 최적의 행위로 선택할 수

10) (16)은 하나의 가능한 구성의 예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의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

있게끔 해 준다. 즉, 조건절에서 도출된 행위 관련 결정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인 것이다.

$$(17) A(c) = \{BLANKET_{ENDURE(Ad)}, NBLANKET_{ENDURE(Ad)}, BLANKET_{HEATER(Ad)}\} \\ <c \{BLANKET_{COVER(Ad)}, NBLANKET_{HEATER(Ad)}\}$$

(15ㄱ-ii)는 화자의 행위 관련 결정 문제가 도출될 만한 조건절과 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주절로 구성된다. 이 경우 (15ㄱ-i)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데 정보 제공의 주체는 청자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절은 의문문의 형식을 갖는다. 다음으로 (15ㄴ)은 주절의 내용이 조건절에서 도출될 수 있는 행위 관련 결정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아프면, 당직 의사가 항상 대기 중이에요’에서 아픈 상황은 (18)과 같은 청자의 행위 결정 문제를 도출하지만, 이어지는 주절에서 그중 단 하나의 최적의 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정보를 주지는 않는다.

$$(18) A(c) = \{NDOCTOR_{REST(Ad)}, DOCTOR_{REST(Ad)}\} <c \{DOCTOR_{HOSPITAL(Ad)}, \\ DOCTOR_{PHARMACY(Ad)}, NDOCTOR_{PHARMACY(Ad)}\}$$

당직 의사가 근무 중인 상황(DOCTOR)에서 병원에 가는 행위(HOSPITAL_(Ad))가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있으나, 병원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는 등 다른 행위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직 의사가 대기 중’이라는 사실은 최적의 행위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다.¹¹⁾ 다음으로 (15ㄷ)은 조건절에서 행위 관련 결정 문제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제공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지금 나갈 거면, 밖에 비와’에서는 조건절이 행위 관련 결정 문제를 구성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15ㄹ)은 실험을 위하여 함께 제공된 필터 문장들이다.

11) 다만, 약을 지어 먹는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 중병인 상황을 설정한다면, 중병은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맥락적으로 더해지므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먹는 행위’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문장의 수용성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3.3. 조사 결과

전체 피험자의 항목별 10문장에 대한 직관 평가를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항목별 직관 평가 (평균값)

항목		매우 자연스럽다	다소 부자연스럽다	매우 부자연스럽다
1	행위 관련 결정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8.5명 (46.25%)	17.1명 (42.75%)	3.8명 (9.5%)
2	행위 관련 결정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가 아닌 경우	9.3명 (23.25%)	20.4명 (51%)	9.5명 (23.75%)
3	행위 관련 결정 문제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	3.3명 (8.25%)	13.9명 (34.75%)	21.4명 (53.5%)

일반적인 조건문으로 구성된 필터 문장에 대한 직관 판단은 75~97.5%의 압도적인 비율로 하나의 답에 치우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표 1>에서 보듯이 관련성 조건문의 경우 압도적으로 하나의 선택지로 응답이 모아지는 경우는 없었다.¹²⁾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항목1의 10개 문장에 대하여 ‘매우 자연스럽다’고 평가한 비율이 37.5~50%(평균 46.25%)로 가장 높았다. ‘다소 부자연스럽다’고 평가한 비율도 27.5~50%(평균 42.75%)로 비교적 높았으나, 다른 항목들에 비하면 부정 응답의 비율이 낮았다. 항목1의 10문장 중 6개 문장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평가한 비율이 50%에 가깝고, 나머지 4개 문장은 ‘매우 자연스럽다’는 응답과 ‘다소 부자연스럽다’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다소 부자연

12)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관련성 조건문은 수용성에 있어서 개인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특별한 맥락 상황이 갖추어지면 비로소 적절해지는 문장들도 많아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본 조사의 결과만을 가지고 수용성 분석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 분 익명의 심사위원들께서도 직관 판단 조사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문장을 대상으로 하고, 좀 더 정교하게 짜여진 맥락에서의 쓰임을 확인하는 등 조사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주셨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실험 문장을 대상으로 하고,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럽다’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항목2의 경우 45~62.5%(평균 51%)로 ‘다소 부자연스럽다’는 응답이 선택되었다. 매우 자연스럽다는 응답은 10~37.5%(평균 23.25%)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항목3의 경우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응답이 45~67.5%(평균 53.5%)로 세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소 부자연스럽다’가 22.5~42.5(평균 34.75%)로 뒤를 이었으며, ‘매우 자연스럽다’는 응답은 2.5~27.5%(평균 8.25%)에 그쳤다.

3.4. 결과 분석

앞서 보인 설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적인 조건문에 비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관련성 조건문을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성 조건문에 대한 세 가지 직관 판단 중 하나의 응답이 과반의 선택을 받기보다는 평균 40%대의 응답률을 보이는 데 그쳤고, ‘다소 부자연스럽다’는 응답을 선택한 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40~50%대로 높게 나타났다. 이로 보아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관련성 조건문을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관련성 조건문의 허용 범위를 본고에서는 ‘관련성’의 의미에 두었고, 행위 관련 결정 문제에 관련된 정보만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에 따라 관련성 조건문을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본고의 예상대로, 조건절에서 행위 관련 결정 문제가 자연스럽게 도출되고, 주절에서 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항목1)에는 대체로 자연스럽게 판단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조건절에서 행위 관련 결정 문제가 자연스럽게 도출되기 어렵거나(=항목3), 도출되더라도 행위 선택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즉, 최적의 행위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절에서 주지 못하는 경우(=항목2) 부자연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항목1의 경우 일부 문장들에 있어서 적절하다는 판단이 매우 높은 비율(47.5%~50%)로 나타났는데, 이들 문장이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전형적인 관련성 조건문으로 판단하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9) ㄱ. 아이가 열이 많이 나면, 해열제 서랍장에 있어.
- ㄴ. 기름이 떨어졌으면, 오른쪽 코너에 주유소가 있어.
- ㄷ. 오늘 회의가 11시 이후에 끝나면, 그 시간에 평택 가는 버스가 있니?

이 문장들은 조건절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행위 관련 결정 문제를 아주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ㄱ)에서 ‘아이가 열이 많이 나는 상황’은 (20)과 같은 행위 관련 결정 문제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20) A(c) = \{NDRUG_{MEDICATION(Ad)}, DRUG_{HOSPITAL(Ad)}\}$$

$$\langle c \{DRUG_{MEDICATION(Ad)}, NDRUG_{HOSPITAL(Ad)}, NDRUG_{PHARMACY(Ad)}\}$$

집에 약이 있는 상황(DRUG)과 약이 없는 상황(NDRUG)에 맞춰 다양한 선택지들이 행위 관련 결정 문제를 형성하고, 주절에서는 그들 행위 중 하나의 행위, 즉 ‘해열제를 먹인다(MEDICATION(Ad))’를 최적의 행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정보인 ‘해열제가 집에 있음(DRUG)’을 알려준다.

(19ㄷ)은 (19ㄱ-ㄴ)과 달리 화자의 문제 상황(밤늦게 귀가해야 하는 상황)을 내포하는데, (21)과 같은 화자의 잠재적 행위 결정 문제를 도출할 수 있다.

$$(21) A(c) = \{NBUS_{BUS(Sp)}, NBUS_{WALK(Sp)}, BUS_{WALK(Sp)}, BUS_{TAXI(Sp)}\}$$

$$\langle c \{BUS_{BUS(Sp)}, NBUS_{TAXI(Sp)}\}$$

이 경우 정보의 열쇠를 쥐는 사람은 청자이기 때문에 주절에서는 최적의 행위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버스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최적 행위를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을 하고 있기에 문장은 적절성을 획득한다.

항목1의 나머지 문장들도 45%의 꽤 높은 비율로 ‘매우 자연스럽게’는 판단을 받았는데,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2) ㄱ. 광주로 가고 싶으면, 전라선 기차 타는 곳은 2번 홈이야.
- ㄴ. 배고프면, 길 건너 골목 안에 식당들이 많아.

(22ㄱ)에서는 ‘(기차역에서) 광주로 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 제공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1번 흡으로 간다, 2번 흡으로 간다, ...’와 같이 행위 선택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 행위 중 최적의 행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라선 기차가 출발하는 플랫폼의 번호’ 정보가 중요하고, 주절에서 바로 그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즉, 기차역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대화)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장을 맞닥뜨리다 보니 적절한 행위 결정 문제를 도출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을 느낀 일부 화자들이 ‘다소 부자연스럽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2ㄴ)의 경우 배고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선택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 ‘외식을 한다’가 최적의 행위로 선택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주절에서 제공되고 있다.¹³⁾

앞서 <표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항목2에서는 ‘다소 부자연스럽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3) ㄱ. 3에 0을 곱한 값을 알고 싶으면, 0이다.
- ㄴ. 누가 나 찾으면, 나 오늘 여기 안 왔다.
- ㄷ.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제 이름은 김현주입니다.
- ㄹ. 저를 잘 모르신다면, 제 이름은 김현주입니다.

(23ㄱ)에서 보면, 조건절에서 어떤 수학식의 답을 알고 싶은 상황이 제공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답지를 살펴본다’, ‘선생님께 물어본다’, ‘혼자 고민해 본다.’ 등이 선택지가 될 것이다. 이들 중 어떤 것이 최적의 행위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께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인지’, ‘답지가 주어져 있는지’ 등의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주절에서는 이들 행위 중에 어떤 것을 최적의 행위로 선택할 것이냐와는 상관없이 문제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주절과 조건절이 의미적으로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행위 기반 결정 문제에 대한 관련성을 획득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항목1의 예 (24)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13) 다만, 서술어 ‘됐다’보다는 ‘걸 건너에 식당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더욱 직접적인 안내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술어의 사용이 판단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왔는지는 설문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이후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24) x값을 알고 싶으면, 문제 풀이는 52쪽에 나와 있어.

(24)의 경우 조건절에서 도출된 행위 관련 결정 문제에서 최적의 행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정보를 주절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모어 화자들은 이 문장에 대해서 40% 가까이 자연스럽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23ㄱ)에 대하여 단 10%의 모어 화자들만이 자연스럽다고 평가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다음으로, (23ㄴ)의 경우 ‘누군가가 화자는 어디에 있는냐고 찾는 상황’이 주어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청자가 갖게 될 행위 관련 결정 문제는 ‘답을 한다’, ‘답을 하지 않는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답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주절이 행위 선택의 직접적인 정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또는 이차적인 정보의 전달로 보인다. (23ㄷ)의 경우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찾거나 하는 등의 행위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결정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겠지만, ‘화자의 이름’을 아는 것이 최적의 행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정보가 되지는 못한다.¹⁴⁾

항목1이나 항목2의 경우 ‘매우 자연스럽다’와 ‘다소 부자연스럽다’ 이 두 가지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문장이 많았는데, 일반 조건문과 달리 관련성 조건문에 대한 직관 판단에 있어서 화자 간의 개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조건절에서 도출된 행위 관련 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화자들 사이에 화용적 맥락 구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행위 관련 결정 문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전형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화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항목3의 경우 과반의 화자들이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5) ㄱ. 내일 내가 사무실에 안 나오면, 새해 복 많이 받아!
 ㄴ. 내일부터 방학이라면, 해수욕장은 다음 주에 개장해.
 ㄷ. 지금 나갈 거면, 밖에 비와.

14) ‘이름을 아는 것이’ 최적 행위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경우(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나 호텔 등 특수한 환경인 경우)로 상황을 제한하면 문장의 수용성이 좋아질 수 있겠다.

(25ㄱ)에서 보면, ‘내일 결근하는 상황’에서 도출될 수 있는 행위 관련 결정 문제를 생각해 내기가 쉽지 않다. 물론 주절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내일 결근을 하면 청자에게 새해 인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행위의 선택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새해 인사를 미리 한다’, ‘새해 인사를 하지 않는다’ 정도가 될 것인데,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하는 직접적인 인사는 어떤 행위를 결정할지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라기보다는 문제 상황 자체를 미리 해결해 버리는 행위 그 자체가 된다. (25ㄴ)의 경우 방학인 것과 해수욕장에 놀러가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내일부터 방학인 것이 어떤 행위 결정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쉽게 떠올리기가 힘들다.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여러 가능한 행위들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25ㄷ)의 경우도 앞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행위 관련 결정 문제를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

항목2와 항목3의 차이도 나타났는데, 행위 관련 결정 문제가 도출되기 힘든 항목3에 비하여, 항목2에서처럼 조건절에 행위 관련 결정 문제를 적절히 도출해 낼 수 있고 주절에 간접적이지만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주는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적절한 문장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평균 23%에 달하였다. 이로 보아 행위 관련 결정 문제가 도출되지 못하는 것은 적절성 획득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간접적이거나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행위 결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대한 판단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기존의 관련성 조건문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영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들 논의를 살펴보면, 항목1에 속하는 문장들을 가장 전형적인 관련성 조건문의 예로 소개하고 있다. 관련성 조건문 논의의 시초가 된 예문이라 할 수 있는 (1ㄱ)이나 (26ㄱ)과 같은 일명 ‘비스킷 예문’이 바로 항목1에 속할 것이다. 다음으로 (26ㄴ-ㄷ)과 같이 항목2나 항목3에 속하는 예들 대부분에 대해서도 구별 없이 적절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다.¹⁵⁾

15) 앞선 논의들에서 본고와 같은 직관 조사를 한 것은 아니나 여러 논문의 저자들이 자신들의 직관에 기반하여 자연스럽게 판단한 문장들이다.

- (26) ㄱ. If you are hungry, there's pizza in the fridge.
 ㄴ. If I can't see you again, happy new year!
 ㄷ. If you need something, my name is John.

이로 보아 한국어에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관련성 조건문이 존재하지만, 그 허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언어마다 관련성 조건문의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고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영어 화자들은 주절에서 조건절의 상황에 행위 관련 결정 문제와 상관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의미·화용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기만 하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한국어 화자들의 경우 주절에서 조건절의 상황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행위 관련 결정 문제 중에서 최적의 행위를 하나만 도출할 수 있게끔 돕는’ 내용을 제공해야 비로소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¹⁶⁾

4. 관련성 조건문의 의미 해석

3장에서 보았듯이 관련성 조건문의 주절과 조건절의 관계는 ‘조건절에서 도출된 행위 관련 결정 문제에 대하여 주절에서 관련된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Park (2015)의 주장을 실제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또한 행위 관련 결정 문제를 도출하지만 간접적인 정보를 주는 경우보다 아예 행위 관련 결정 문제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적절한 문장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관련성 조건문의 해석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Park (2015)에서 역동적 의미론의 틀에서 관련성 조건문을 해석하고자 한 것과 달리, 관련성 조건문도 일반적인 조건문과 큰 틀에서는 그 의미적 구조가 다르지 않다는 가정하에 Kratzer (1979, 2012)의 제

16) 앞서 각주4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 한 명의 영어 모어 화자에게 확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47-ㄴ)이 (17)과 같은 대표적인 관련성 조건문의 예에 비해서는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만약 이것이 대부분의 영어 화자에 적용되는 사실이라면, 영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행위 관련 결정 문제에 관련된 것을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 논의에서는 (47-ㄴ)을 정문으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는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는 차후 더 깊이 있는 조사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한자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성 조건문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4.1. 이론적 배경: Kratzer 식의 조건문 해석

Kratzer (1979, 2012)는 조건문의 ‘if ……then’을 두 명제의 논리적 연결 연산자로 보는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 조건문의 새로운 합성적 의미 구조를 제안하였다. Lewis (1975)에서 ‘If it is sunny, Mary always goes to the park’와 같이 주절에 양화 부사를 포함하는 조건문의 조건절은 양화 부사의 양화 범위를 제한하는 제한자의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Kratzer (1979, 2012)에서는 이와 같은 Lewis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양화 부사를 포함하지 않는 조건문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보편적 해석 원리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Kratzer (1979, 2012)에서는 주절의 연산자가 무엇이 되었든 조건절은 그 연산자의 양화 범위를 제한하는 제한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27_기)의 경우 (27_나)과 같이 주절에 보이지 않는 필연성의 인식 양상소(MUST)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는데, 조건절이 그 양상소의 양화 범위 즉 양상 기반(modal base)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27_기)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갖는다: 날이 맑은 것이 참인 모든 가능 세계들은 모두 Mary가 공원에 가는 것이 참인 세계들이다.

- (27) 기. If it is sunny, Mary will go to the park
 나. If it is sunny, MUST(Mary will go to the park)

4.2. 한국어 관련성 조건문의 해석 제안

한국어 관련성 조건문의 전형적인 예를 보자.

- (28) 배가 고프면, 식탁 위에 빵이 있어.

(28)의 조건절에서는 ‘(청자가) 배가 고픈 상황’이 제시되고, 이러한 문제 상황은 화용적으로 (청자가) 배고픔을 해결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화자의 가정을

포함한다.¹⁷⁾ 청자가 행위와 관련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청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원한다는 화자의 가정을 고려할 때 (28)은 다음과 같이 바뀌 말할 수 있다.

(29) 배가 고프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으면, 식탁 위에 빵이 있어.

Condoravdi & Lauer (2016)에 따르면, 행위 관련 결정 문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인 행위를 선택할 때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 결정과 관련하여 무엇을 원하는지(=선호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Condoravdi & Lauer (2016)에서는 실질적인 선호(effective preference)에 해당한다. 이때 실질적 선호(effective preference)는 Condoravdi & Lauer (2012)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화자 또는 청자의 선호(選好, preference)를 의미하는데, 화청자의 심리적 선호(psychological preference)들 가운데 행위 관련 결정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선호만이 실질적 선호가 된다.¹⁸⁾ 즉 최적인 행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선호를 말한다. 이때 선호는 부분적 순위(partial order)를 가진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일종의 순서화 기제(ordering source)와 ‘중요성’ 순위(importance ranking)의 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어떤 행위가 가능하고,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28)의 경우 ‘집에서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사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집에서 먹는 것과 밖으로 나가서 먹는 것의 결과’(예를 들면, 경제적 결과, 육체적 노력의 정도 등)를 알아야 한다. 후자의 경우 앞서 실질적 선호에서 어떤 행위가 어떤 행위보다 더 좋은 또는 나쁜 선택인지를 결정하도록 (즉, 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전자는 무엇이 가능한지를 앞으로써 최종적으로 하나의 최적인

17) 이는 화자의 일방적인 가정일 뿐이기 때문에 청자의 실제적인 상황인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실제로는 청자에게 있어서 ‘배가 고프다’는 것이 문제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화자의 상황 판단에 따라 문제 상황의 발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18) 실질적 선호는 일반적인 원망(願望, desire)이나 심리적 선호(psychological preference)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들이나 선호하는 것들은 양립 불가능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 선호는 앞으로의 행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선호되는 것들 사이에는 양립 불가의 속성을 가질 수 없다.

행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준다.

본고에서는 관련성 조건문의 조건절에 의하여 행위 관련 결정 문제가 도출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첫 번째 요소인 (청자의) 실질적인 선호와 관련된 정보는 화자의 가정에 의하여 조건절에 보충되고, 두 번째 요소인 어떤 행위가 가능한가와 관련된 정보가 주절에서 주어진다고 분석한다. (29)에서 보면, 화자의 상황 판단에 의하여 청자의 선호에 대한 가정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하고 싶으면’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으)려면’이나 ‘~고자 하면’ 등 비슷한 표현으로 대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표현은 청자의 실질적 선호에서 조건절의 명제를 가장 상위에 올려놓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¹⁹⁾ 이와 같은 해석은 Condoravdi & Lauer (2016)의 아난케 조건문(Anakastic conditionals)의 해석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아난케 조건문은 If want(p), must(q)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조건절 태도 술어(attitude predicate)의 보충어(complement)와 주절 양상소의 보충어 사이에 필요-수단 관계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30)의 경우 조건절의 태도 술어 ‘want’의 보충어에 해당하는 ‘you go to Harlem’(청자가 할렘에 가는 것)과 주절 양상소의 보충어인 ‘you take the A train’(청자가 A 열차를 타는 것) 사이에 필요-수단 관계가 성립한다.

(30) If you want to go to Harlem, you have to take the A train.

(Condoravdi & Lauer 2016, Ex. (1))

Condoravdi & Lauer (2016)에서는 이와 같은 아난케 조건문을 해석하면서, 조건절에 나타나는 ‘want’, ‘goal’, ‘plan’ 등의 의도와 관련된 술어들이 화·청자의 실질적 선호에서 조건절의 명제를 가장 상위에 올려놓는 역할을 한다고 하

19) 물론, Condoravdi & Lauer (2016)에서는 ‘want’와 같은 의도나 목적의 술어가 실질적 선호의 순서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에서도 직접 언급하였듯이 ‘want’와 같은 술어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아난케 조건문과 동일한 의미 해석을 갖는 유사-아난케 조건문(near-anakastic conditionals)이 존재한다. Condoravdi & Lauer (2016)에 따르면, ‘행위자가 조건절 명제 p에 대하여 실질적 선호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실현된다’는 맥락상의 가정이 있다면, ‘want’와 같은 실질적 선호 조작에 대한 유발자(trigger)가 없다 하더라도 아난케 조건문과 동일한 의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성 조건문의 조건절에 ‘want’와 같은 청자의 실질적 선호의 순서에 대한 조작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였다. 예를 들어 (30)에서는 ‘want’라는 술어에 의하여 ‘할렘에 가는 것’을 청자의 실질적 선호의 가장 상위에 놓게 되는 것이다. Condoravdi & Lauer (2016)에서는 이와 같은 청자의 실질적 선호를 기반으로 하여 조건절이 필연적 양상소(NEC)의 양상 기반을 제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조건절의 명제가 실질적 선호에서 가장 상위를 차지하는 가능 세계들(즉, 조건절의 명제가 가장 이루어야 할 목표 또는 원망이 되는 가능 세계들)로 양상소의 양상 기반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0)의 의미 구조는 (31)과 같이 되고, 그에 대한 의미 해석을 기술하면 (32)와 같다.²⁰⁾ (Condoravi & Lauer 2016, Ex. (88)-(89))

(31) $NEC_{f_{belS}, g_{norm}} [want_{EP} (Ad, Harlem)] [MUST_{f_{hist}, g_{epA}} [ATrain]]$

(32) All the most typical worlds consistent with what the speaker knows in which the addressee has the goal of going to Harlem are such that all their possible future continuations in which the addressee’s goals are eventually realized in an optimal way are such that the addressee takes the A train.

물론 관련성 조건문에서 주절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나케 조건문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아나케 조건문과는 달리 관련성 조건문에서는 주절에 의무 또는 허가 양상의 의미가 표면에 양상소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관련성 조건문은 인식 양상소 외에 의무/허가 양상소까지를 포함하는 구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신 의무나 허가의 의미는 맥락에 의하여 함축적 의미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20) 아나케 조건문의 주절에 ‘should’나 ‘have to’ 등의 의무 양상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Condoravdi & Lauer (2016)에서는 아나케 조건문의 의미 표상에서 두 개의 양상 연산자(NEC, MUST)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첫 번째 양상 연산자 NEC는 일반적으로 조건문이 기본적으로 갖는 양상소로서 Kratzer의 Human necessity modal에 해당한다. 이때 양상 연산자들은 두 개의 담화 정보(양상 기반 f 와 순서화 기제 g)를 매개 변항(parameter)으로 취하는데, 조건절의 인식 양상소 NEC는 화자의 지식(speaker’s knowledge)이 모두 참이 되는 가능 세계들을 양상 기반으로 (g_{belS}), 전형성을 순서화 기제로(f_{norm}) 삼는다. 조건절은 $want_{EP}$ 로 인하여 ‘청자(Ad)가 할렘에 가는 것’이 청자의 실질적 선호의 가장 상위에 있는 가능 세계만을 NEC의 양상기반으로 남기고 나머지 세계들을 양화 대상에서 배제시킨다. 주절의 의무 양상소 MUST는 행위자(Agent)의 목표(goal)와 관련한 목적 양상(teleological modality)을 갖기 때문에 정황 양상 기반(f_{hist})을 취하고, 행위자의 실질적 선호 중 가장 선호되는 것들로 구성된 순서화 기제 g_{epA} 를 취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련성 조건문의 조건절은 조건절의 명제가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갖는, 즉 청자의 실질적 선호에서 조건절 문제의 해결을 최상위에 위치시키는 가능 세계들을 양상 기반으로 추려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28)에서는 ‘배고픔 해결하기’를 실질적 선호의 최상위에 위치시키고, 그와 같은 실질적 선호을 기반으로 하여 행위 결정 문제(즉, 가능한 행위 대체항의 집합)에서는 $\{\text{FOOD}_{\text{EAT}(\text{Ad})}, \text{NFOOD}_{\text{OUT}(\text{Ad})}\}$ 가 다른 모든 대체 행위들보다 상위에 위치하게 된다. 이때 두 가지 방안을 이용해 청자로 하여금 두 가능한 대체항들 중에서 최적의 행위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으로 최적의 행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둘 중 하나의 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맥락적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안을 취한 경우 (33ㄱ)과 같이 주절에 의무나 허가 양상소가 나타나거나 명령문이 쓰일 것이다. 반면, (33ㄴ)과 같은 관련성 조건문을 사용하는 것은 두 번째 방안을 취한 경우라 하겠다. 집에 무언가 먹을 것이 있다는 맥락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청자가 $\text{FOOD}_{\text{EAT}(\text{Ad})}$ 를 최적의 행위로 선택하게끔 인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성 조건문에서 주절의 명제 내용은 행위 관련 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간접적으로 가담한다.²¹⁾

- (33) ㄱ. 배고프면, 냉장고에 있는 피자를 먹어!/먹어도 돼/먹어야 해.
- ㄴ. 배고프면, 냉장고에 피자가 있어.

지금까지의 설명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34)와 같은 의미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의미 해석은 (35)와 같이 될 것이다.

- (34) $\text{NEC}_{\text{fbls}}, \text{g}_{\text{norm}} [\text{want}_{\text{EP}} (\text{Ad, to solve Hunger})] [\text{There's pizza in the fridge}]$
- (35) 청자가 ‘배고픔 해결하기’를 최상의 실질적 선호로 갖는 가능 세계들은 모두 냉장고에 피자가 있는 세계들이다.

21) 많은 화자들이 관련성 조건문 ‘배고프면, 냉장고에 피자 있어’을 ‘배고프면, 냉장고에 피자 있으니까 먹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조건 명령문(conditional imperative)의 경우 행위 결정에 대한 해결책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행위 선택 유도를 하는 관련성 조건문보다는 수용성에 있어서 더 자연스럽게 느끼는 화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5)의 경우 (28)의 직관적 해석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 주절이 참이 되는 세계들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에 피자가 있다’는 것이 적절한 정보가 되는 세계를 골라내야 한다. 또한 항목2의 예 ‘누가 나 찾으먼, 나 여기 안 왔다’(=주절의 명제가 명백한 거짓인 예)가 개인차는 있었지만 꽤 많은 화자들이 자연스럽게 판단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iegel (2006)에서 제안한 방식의 의미 해석을 일부 받아들여 관련성(relevance)을 주절의 의미 해석에 편입시켜 (34)-(35)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36)과 같은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고 ‘청자가 ‘배고픔 해결하기’를 최상의 실질적 선호로 갖는 가능 세계들은 모두 ‘냉장고에 피자가 있다’라는 적절한 발화가 존재하는 세계이다.’로 해석된다.²²⁾

(36) $NEC_{\text{felS}, g_{\text{norm}}}$ [$want_{EP}$ (Ad, to solve Hunger)] [there is a relevant assertion that there's pizza in the fridge]

여기서 ‘relevant’라는 의미는 결국 행위 관련 결정 문제와 관련이 있는, 즉, 최적의 행위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5. 결론과 남은 문제

본고에서는 한국어 관련성 조건문에서 조건절에 대한 주절의 ‘관련성’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국어 모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관 판단 조사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주절에서 도출된 행위 관련 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즉 행위 관련 결정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들 중에서 하나의 최적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를

22) 앞서 잠재된 축어적 행위(potential literal act) 분석은 주절의 발화가 실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다음 (ㄱ)과 같은 예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받았다고 하였다.

(ㄱ) If I don't see you any more, have a great vacation! (앞으로 너 못 보면, 방학 잘 보내!) 그러나 적어도 한국어에서만은 다수의 화자가 (ㄱ)과 같은 예는 부적절한 문장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절에 실제 화행이 수행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화행 관련 동사를 포함하는 관련성 조건문을 통합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본고에서는 모어 화자들에 대한 직관 판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성 조건문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조건문과는 구분되는 의미 해석 방식을 제안한 기존 논의들과는 달리 Kratzer식의 일반적인 조건문의 기본적인 해석 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성 조건문의 조건절도 일반적인 조건문의 조건절과 마찬가지로 주절에 나타난 필연 양상소(NEC/MUST)의 양상 기반(modal base)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관련성 조건문에 나타나는 조건절과 주절의 관계를 적절히 도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ㄱ) 조건절에 의하여 (잠재적) 행위 관련 결정 문제와 그에 따라 가정된 ‘청자의 원망’이 도출되고, 이는 청자의 실질적 선호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다. ㄴ) 주절은 행위 관련 결정 문제를 구성하는 가능한 행위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하나의 최적의 행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Siegel (2006)에서와 같이 잠재된 축어적 행위로 해석된다.

본고에서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남은 문제들이 있다. Siegel (2006)에서 애초에 잠재된 축어적 행위라는 개념을 관련성 조건문의 의미에 포함시킨 것은 주절이 명백히 거짓인 문장까지 아울러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예: *If they ask you how old you are, you are four.*) 그러나 본고의 한국어 직관 조사에서는 ‘누가 나 찾으면, 나 오늘 여기 안 왔다’와 같은 문장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결과가 나왔기에 주절은 모두 실제 발화가 발생한 것이며, 모두 참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단 하나의 문장만을 조사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주절이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앞으로 주절이 실제 화행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잠재적인 축어적 행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지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수정·최동주(2018), “-면’ 조건문의 유형과 시제”, 언어 43(2), 한국어언어학회, 201-221.

- 박승윤(2003), "Conditionals in Korean Revisited," *담화와 인지* 10(2), 25-52.
- 이복희(2009), "관련성 조건문의 조건단언과 고정함축," *영미어문학* 92, 한국영미어문학회, 293-316.
- Austin, J. L.(1961), "Ifs and cans." in J. L. Austin ed., *Philosophical pap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53 - 180.
- Bach, K.(1999), "The Myth of Conventional Implicature," *Linguistics and Philosophy* 22, 327-366.
- Bach, K. and R. Harnish.(1979), *Linguistic Communication and Speech Acts*, MIT Press: Cambridge, MA.
- Bhatt, R. and R. Pancheva.(2006), "Conditionals," in M. Everaert, M. van Riemsdijk, H. ed., *The Blackwell Companion to Syntax* 1, Boston & Oxford: Blackwell, 638-687.
- Condoravdi, Cleo and Sven Lauer.(2012), "Imperatives: meaning and illocutionary force," *Empirical Issues in Syntax and Semantics* 9, ed. Christopher Piñón, 37-58.
- Condoravdi, Cleo and Sven Lauer.(2016), "Anankastic conditionals are just conditionals," *Semantics and Pragmatics* 9, 1-69.
- Davis, Christopher.(2009) "Decisions, Dynamics and the Japanese Particle yo," *Journal of Semantics* 26(4), 329-366
- Derose, Keith and Richard E. Grandy.(1999), "Conditional assertionsand "biscuit" conditionals," *Nous* 33(3), 405-420.
- Franke, M.(2007), "The Pragmatics of Biscuit Conditionals," in M. Aloni, P. Dekker, and F. Roelofson ed. *Proceedings of the 16th Amsterdam Colloquium*, the Institute for Logic, Language, and Computation (ILLC) of the University of Amsterdam.
- Grice, H. P.(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L. Morgan ed.,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Academic press: New York, 41-58.
- Heim, Irene.(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sets, Amherst.
<http://web.mit.edu/fintel/fintel-2009-hsk-conditionals.pdf>
- Iatridou, Sabine.(1991), *Topics in Conditionals*. Doctoral dissertation., MIT
- Kaufmann, S.(2000), "Dynamic context management," in S. Kaufmann, M. Faller and M. Pauly. ed. *Formalizing the dynamics of information*, Stanford, CA: CSLI.
- Kratzer, Angelika.(1979), "Conditional necessity and possibility," in Rainer Bäuerle, Urs Egli and Arnim von Stechow ed., *Semantics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Springer, 117 - 147.

- Kratzer, Angelika.(2012), *Modals and Condition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koff, G.(1972), “Linguistics and Natural Logic,” in D. Davidson and G. Harmon ed.,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Reidel, Dordrecht.
- Lewis, David.(1975), “Adverbs of Quantification” in E. Keenan ed.,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 15; reprinted in David Lewis(1998), *Papers in Philosophical Log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20.
- Nakau, M.(1994), *Ninchi Imiron no Genri* (Principles of Cognitive Semantics), Taishukan, Tokyo.
- Park, Yugyeong.(2015), *A grammar of mood and clausal adjunction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laware.
- Ross, J. R.(1970),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
- Sano, Katsuhiko and Yurie Hara.(2014), “Conditional independence and biscuit conditional questions in Dynamic Semantics,” *Proceedings of SALT 24*, 84-101
- Scheffler, Tatjana.(2008a), Relevance Conditionals as Utterance Modifying Adverbials, O. Bonami and P. Cabredo Hofherr (eds.) *Empirical Issues in Syntax and Semantics 7*, 373-392.
- Scheffler, Tatjana.(2008b), *Semantic operators in different dimen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Shizawa, Takashi.(2011), “Form, Meaning and Discourse: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Conditional Constructions in English and Japanes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sukuba.
- Siegel, Muffy.(2006), “Biscuit conditionals: Quantification over potential literal ac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9(2), 167-203.
- Stalnaker, Robert.(1968), “A theory of conditionals,” in Nicholas Resher ed. *Studies in Logical Theory*, Oxford: Blackwell. 98-112.
- Sweetser, E.(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chida, S.(2001), “Koozi Hyoozi kara Mita Niti Ee Hikaku e no Iti Siten (Higher Level Explicatures and Japanese),” *Ningen Bunka Kenkyuuka Nenpo* (Annual Reports of Graduate School of Human Culture) 17, Nara Women’s University, 7-17.
- van Rooij, Robert.(2003), “Questioning to resolve decision problem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6(6), 727-763.

164 박유경

박유경

서울대학교(강사)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08826

전화 번호 : 02-880-6163

전자 우편 : yugyeongpark@gmail.com

원고 접수일 : 2022. 4. 30.

원고 수정일 : 2022. 6. 11.

게재 확정일 : 2022. 6. 13.